

# 尹정부,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절반 ‘삭둑’

### ‘지역특화산업’ 예산 1천189억원→517억원 57% 삭감 尹대통령 ‘R&D 카르텔’ 발언 후 中企 연구개발 위축 김원이 “지역균형발전 역행...예년 수준 되살려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국민적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내년 지방 중소기업의 R&D 지원 예산이 다시 절반이나 줄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와 함께 지역별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유망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 산업육성(R&D)’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역혁신 선



도기업육성(R&D)’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산자위 간사·사진)이 29일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의 지역특화 산업육성(R&D) 국비 예산은 ▲2020년 1천50억원 ▲2021년 1천203억원 ▲2022년 1천132억원 ▲2023년 1천189억원 ▲2024년 5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해마다 1천억원이

넘던 예산은 올해 절반 이상 줄어든 517억원으로 489개 기업을 지원하는 데 그친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슷한 성격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R&D) 사업 역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16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로 끝나는 기존 사업 예산 200억원과 합해도 308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 1천억원 규모이던 예년에 비해 30% 수준이다. 자금과 인력, 인프라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지방 중소기업 R&D 예산 축소는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거 삭감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중기부가 제출한 ‘R&D 과제 포기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3개이던 과제 포기 개수는 2023년 57개, 올해는 7월 기준 175개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과제 포기 건 중 예산 삭감에 따른 과제 포기 신청이 153개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즉, 국비 지원 중단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며 “해당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되살려 친환경에너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분야를 선도할 기술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수산물이력제’ 참여율 고작 6.46%

### 도입 20년 넘었지만 국민 2명 중 1명 ‘몰라’ 문금주 “참여 업체, 경영 인센티브 강화해야”

수산물이력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됐지만 참여 비율은 10%대 이하를 밀도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이 2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국내 수산물 총생산량 237만3천760t 중 15만3천452t으로 6.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산물이력제 참여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대였으나 지난해 8.91%로 최고점을 찍고 올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수산물이력제는 식품 안전사고 발생 시 역추적을 통해 신속한 회수 조치로

국민의 안전과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 확대를 위해 2006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수산물이력제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성 품목 중점 관리, 민간참여 이력제 등의 제도를 추진해왔다. 수산물이력제에 참여하는 업체도 2019년부터 2023년 627-758개 사이로 올해도 659개에 지나지 않는다. 2005-2007년 시범사업 당시 참여 업체가 344개소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20년간 참여 300-400개소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 특히 국민 2명 중 1명은 수산물이력제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이력제 소비자 인지도는 2019년 4



21%에서 2023년 45%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50% 이하에 머물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2018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2021년 생산이력 중심의 이력 공개 정보 단순화 등 수산물이력제 개편 방안, 2023년 수산식품 민간참여 이력제 추진 방안, 2024년 민간 주도 이력제도 확산 및 이력제 연계 재순환 여상자 사용 확산 등 제2차 수산물유통발전 기본계획 수립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문금주 의원은 “이력제의 지속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 업체에 상대적으로 경영 상의 이익이 있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단계별 제도 진단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민주당 의료대안대책위 현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안대책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부산 금정구 옛 침례병원 앞에서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한 부산 공공의료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 의료계 요구 직접 반영...전문가 10-15명 구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정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간호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위원회에 전문가 10-15명이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 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각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도 의사 단체가 이 기구에 들어와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내면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다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논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인력의 수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연합뉴스

## 김문수 ‘지역 창업생태계구축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사진)은 29일 “지역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제를 다양화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학협력단 등이 단독 또는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주체인 산학협력단 등(공동 설립은 각 기관 포함)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지속적인 대응 출자가 어려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산학협력체 등이 기술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현금 출자를 하면 할수록 대학의 산학 협력체는



대응 투자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연합형 대학기술지주회사는 광주, 전남 외에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전북, 포항 등 7개 사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와 지역소멸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으로 적극적인 지역 창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독채·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 재료를 염색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 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공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